

### 키워드로 전망하는

## 2022년 트렌드!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다. 한 해를 더 호기(虎氣)롭게 보낼 수 있는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책 『트렌드 코리아 2022』

#### 나노사회(Nano Society)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뜻이다. 즉, 나노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면서 개개인이 오히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알고리즘 등이 개인 간의 장벽을 더 높이고 있는 만큼 나노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향한 공감력이 필요하다.

#### 머니러시(Money Rush)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즉, 투자와 투잡(N잡) 등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가리킨다. 특히 투잡의 경우 유튜브와 SNS, 온라인 플랫폼 등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1인 미디어 급증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는 세포마켓이라 불리는 1인 마켓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득템력(Gotcha Power)

경제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차지하는 능력을 이른다. 득템력은 정보·시간·정성·인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희소한 상품을 '구매'가 아닌 '획득'하는 능력이다. 득템력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소비욕구를 자극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시종일관 새로운 뉴스들을 양산해내는 다양한 매체와 챗봇이 도는 듯한 일상,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하는 긴 코로나 상황 등에 지쳐있다면, 가끔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멍때리기를 즐겨봐도 좋겠다.

####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건강관리가 즐거워진다'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쾌락을 절제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의 건강관리였다면 이제는 건강관리에도 즐거움을 부여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건강과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확산했는데, 여기에 SNS 인증과 경험·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

#### 엑스틴 이즈 백(X-teen Generation)

MZ세대와 관련된 트렌드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의 규모나 파급력으로 볼 때 소비시장의 주요 세대는 X세대(1965~1979년)다. 기성세대보다 풍요로운 10대를 보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경험한 X세대는 세계 담론의 출발점이었으며, 현재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엑스틴(X-teen)'으로 불리고 있다.

#### 바른생활 루틴이

루틴을 통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자기만의 의미 있는 일상을 설계하고, 스스로 바른생활을 추구하며 정해진 생활 루틴을 지키려 한다. '바른생활 루틴'은 재택 근무 확산과 근로 시간 축소 등으로 생활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생긴 것으로 경쟁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 계발이 아닌, 힐링을 도모하며 미세행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 실재감테크

#####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비대면 회의와 면접 등이 늘면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실재감테크'가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사라져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첨단기술이다. 공간을 창조해 생활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메타버스와 가상 인플루언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 라이크커머스(Like Commerce)

라이크커머스는 소비자가 '좋아요'를 누르는 데서 구매가 시작되는 차세대 유통시장이다. 기존 생산자 주도의 패러다임에서는 공급망관리가 중요했지만, 라이크커머스에서는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즉,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화장품보다 뷰티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라이크커머스의 보편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 내러티브 자본(Tell Me Your Narrative)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러티브가 강력한 자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내러티브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석해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내러티브는 발화의 주체가 창의성 있게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